

포스코파워,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

80억원 투입해 100kW급 개발 ... 병원·공원에서 필요전력 10% 공급

포스코파워가 국내 최초로 100kW급 건물용 연료전지를 개발했다.



포스코파워는 80억원을 투입해 건물용 연료전지를 개발했으며, 개발된 연료전지는 100kWh의 전력과 46Mcal/h의 열을 발생시킨다고 2월1일 발표했다.

건물용 연료전지는 서울시 서북병원과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돼 필요한 전력의 약 10%를 공급하며, 갑작스러운 도심 정전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발전도 가능하다.

또 전기와 함께 생산되는 열은 병원의 급탕시설과 공원의 난방 열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.

김중곤 포스코파워 연료전지사업실장은 “건물용 연료전지는 작지만 성능이 좋아 도시에 설치하기 좋은 신·재생에너지”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01>